

農樂服飾에 관한 研究

徐 玉 圭*

〈目 次〉	
I. 序 論 II. 農樂의 理論的 背景 A. 農樂의 起源 및 由來 B. 農樂의 始源思想 C. 變遷 및 구성형식 III. 筆峰農樂의 編成 및 服飾類型 A. 필봉농악의 지역적 특징 B. 필봉농악의 편성 인원	C. 旗 D. 필봉농악 복식의 유형 IV. 農樂服飾의 造形的 特徵 A. 美的 特徵 B. 服飾의 造形的 物徵 C. 보완되는 제안 V. 結 論

I. 序 論

본 연구는 민족 고유의 전통마당놀이인 농악의 복식에 관한 것으로, 農樂服飾은 일상생활에 착용되는 기본적인복을 이용한 실용성과 마당놀이로서의 공연 장소의 특징에 따른 동작의 확산을 보여주는 美的 表現性을 동시에 갖춘 무대복식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목적은 현시점까지 온 농악의 복식에 대한 정리 및 현대의 미의식에서 보는 농악복식의 예술성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각도에서의 평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에 있어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농악(무형문화재 제11호) 중 대표적인 5개 지역(京畿; 平澤, 嶺東; 江陵, 嶺南; 晋州, 湖南右道; 裡里, 湖南左道; 筆峰)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복식유형을 문헌과 비교, 정리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위해 1986년 6월, 9월, 1987년 2월, 5월 등의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주최 잠실놀이마당 공연 및 전북 임실 필봉마을의 공연과 각 지역 상쇠나 대

표자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정리한 후 조형상의 특징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 논고를 통해 발표할 내용은 앞의 5개 지역중 보수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호남좌도농악의 대표지역인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마을에서 가진 7년만의 정식공연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II. 農樂의 理論的 背景

A. 農樂의 起源 및 由來

농악의 기원은 고대의 제천의식이라 할 수 있다.¹⁾ 그 의식을 통해 발전된 농악은 ① 農事安宅祝願說, ② 軍樂說, ③ 佛敎關係說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²⁾ ①은 현존하는 농악에서도 보여주는 堂굿, 샘굿, 堂神祭, 洞祭, 지신밟기 등이 이에 속하며 農耕儀禮와 安宅祝願的 요소로 나타난다. ②는 삼국시대이래 전시용 진법을 樂舞로 지휘, 훈련하던 군악적 승전굿이 점차 농악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는 설로 농악의 구성형태나 복식으로 보아 軍樂的 성격은 어느 지역

*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1) 송석하, 韓國民俗考, p. 321.

2) 홍현식, 김천홍, 박헌봉, 호남농악,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33호, 1917, p. 19.

에서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은 삼국시대 이래 불교가 국교로 인정되면서 민간포교로 풍물굿과 합류되어,舍利건립모금시 민가를 순방하던 굿중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이러한 설들을 뒷받침하는 巫俗的 요소나 軍的인 요소, 佛敎的 요소들은 농악을 상징하는 농기나 영기, 방울, 북 이외에 더그레, 전립, 고깔, 가사라고도 부르는 색띠 등의 복식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악은 시대에 따라 변천, 발달되어오면서 북과 춤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형태의 기원농악, 김매기나 모심기의 작업능률을 위한 두레농악, 마을의 公金이나 절의 徵收金을 위해 쌀과 돈을 걷는 걸립농악, 관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예농악 등의 네가지 유형³⁾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네가지 유형들은 종교적 기원농악에서 출발하여 시대에 따라 내려오면서 단편적으로 구분되어 발달·전승되어 온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형태에 치중되면서 복합적이며, 同時的으로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변천되어 왔다 한다.

이러한 유형의 종류에 따라, 服飾이나 구성형식 등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두레농악시에는 農服차림의 4~5명 정도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오락을 위한 판굿 중심으로 발달되면서 20~30명 내외로 구성되었고 화려해지게 되었다 한다.

B. 農樂의 始源思想

원래 농악의 始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헌적 기록은 없으나, 농악은 제천의식을 통한 농기춤에서 출발한 것으로, 祭天儀式의 天神祭에는 大本을 세우고, 방울과 북을 걸고 天君이 祭하고, 밤낮없이 群聚歌舞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초기의 농악은 그 내용이 巫俗에 바탕을 둔 祝願形態의 지신밟기였다⁴⁾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또한, 上古時代이래 來往神신앙으로 이에

대한 祭儀에는 가면의 가장행렬을 수반하면서 주기적 농경의례로 행해져 왔음⁵⁾을 볼 때, 이는 농악에 있어 잡색들의 '극놀이'의 원류가 된 것이 아닌가⁶⁾ 학자들은 보고 있다.

C. 변천 및 구성형식

상고시대이래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의종왕은 팔관회때 농악경연대회를 열었다고 하며,⁷⁾ 이 시기 서민문화가 발전되면서 사당패와 같은 전문적 민중예술 집단의 곡예나 놀이가 농악에 영향을 주게되어 농악은 본래의 형태에서 변화, 발전되어 갔다⁸⁾고 하며, 조선초 農本思想으로 농악은 장려된 바 있으나, 점차 유교사상에 의해 풍물굿은 배척하게 되었고, 조선말 민란이 잦아지면서 상부층은 농민을 단결시키는 농악을 경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직업적 사당패들에 의해 걸립형태로 발전되어, 복식에 있어 화려함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일제시대, 민족공동체 놀이를 없애려는 日人들에 의해 농악은 소멸되었으며, 해방과 6.25 동란이후 서방문화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없어진데다가, 1970년 이후 미신타파정책으로 농악은 점차 소멸되었으나, 근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농악경연대회를 열어 연중행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 농악정신은 망각되고 단순한 연예물로 지방적 특색을 잃고 있으며, 본래의 내용과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악의 구성형식을 보면, 농악은 대체로 음력 정월 대보름, 5月 播種, 6月 除草, 7月 百中, 8月 秋夕 등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행하여졌으며, 농악을 치는 장소는 마을의 堂山 주변이나, 생산의 현장인 들판이나 또는 전쟁터, 생활의 공간인 집의 마당, 공동우물터 등 어디에서나 행해졌으며,⁹⁾ 농악무는 圓形을 이루면서 진행된다.

농악의 구성형식은 대체로 打樂的 요소와 舞

3) 李輔亨, 한국민속대관(민속예술, 생활기술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p. 83.

4) 金宅圭,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p. 139.

5) 앞 글, p. 164.

6) 李杜鉉, 「한국의 가면극」, p. 36.

7) 孫容培, 「농악의 역사적 고찰」, 무용한국 제20호, p. 100.

8) 김양곤, 무용의 탐구, 韓國廣報개발원, 1981.

9) 鄭炳浩, 「농악」, p. 130.

戲的 요소가 혼합하여 이루어진다. 농악의 기본 악기는 四物 즉, 팽과리, 징, 장고, 북이다. 이외에 소고 등으로 구성되며, 古形에는 징을 중요시했다 한다. 농악의 舞는 四物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놀이로 진행되나, 그 외에 舞童놀이, 잡색들의 극놀이, 열두발 삼모놀이 등이 있으며 이들은 악기를 갖추지 않고 놀이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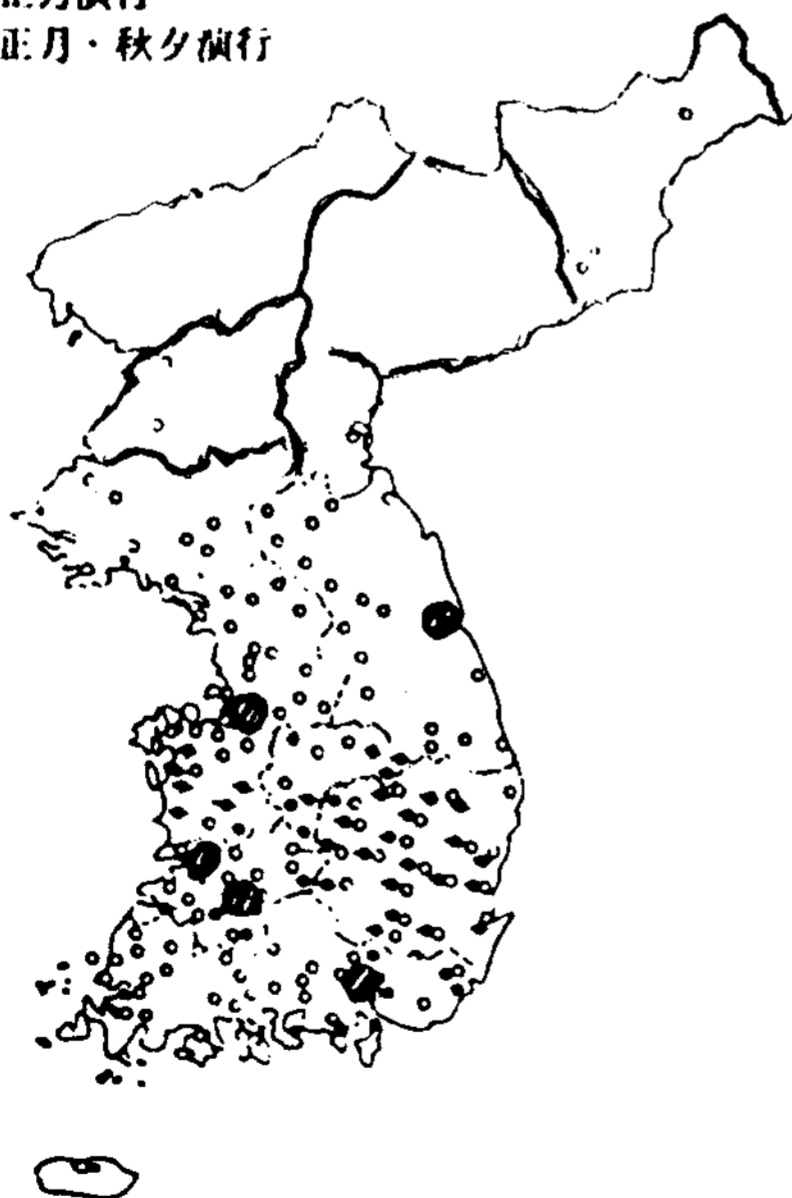
Ⅲ. 筆峰農樂¹⁰⁾의 편성 및 服飾類型

A. 필봉농악의 지역적 특징

농악은 원래 중부이남 지역에서 주로 발달한 놀이로 평안도나 함경도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지역적 특징¹¹⁾을 갖고 발전되어 왔으며(도 1) 산간지역보다 평야지역에서 발달된 것으로, 놀이와 복식에 있어 더 화려함을 보여준다.

옛부터 호남지역은 곡창지대로 농악을 크게 쳤으며 이 지역의 농악은 左道와 右道農樂으로 구

- 農樂
- 正月儀行
- ◐ 正月·秋夕儀行



〈도 1〉 농악의 분포

10) 현장조사한 내용 참조. 1988年 2月 14, 15日,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농악 참관.

11) 임동권, 「한국민속학 논고」, p. 269.

12) 金宅圭, p. 392.

13) 정병호, 「농악」, p. 44.

분된다.

호남우도농악은 서쪽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金堤, 裡里 등에서 발달하였으며, 호남좌도농악은 전라도 동쪽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全州, 南原, 任實, 淳昌, 茂州, 昇州, 麗川 등지에서 발달하였다. 필봉농악은 대표적인 호남좌도 농악으로, 현존하는 농악중 가장 보수성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쇠꾼들의 윷놀이(부포삼모놀이)와 단체놀이, 잡색놀이가 발달되어 있다.

B. 필봉농악의 편성인원

농악대의 편성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四物을 중심으로 기본 편성을 이루며, 그 편성체제는 생산을 위한 두레농악의 4~5명 내외로 구성되는 소규모적 두레농악패와 20~30명 내외로 구성되는 직업적 대규모적 걸립농악패로 나눌 수 있다.

편성인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수는 용기수, 농기수, 영기수 등이 있으며, 농악을 상징하는 기를 든다.

상쇠는 神官的 기능을 가진 巫官의 후예이며 농악의 지휘자로 각 지역 농악을 대표한다.

樂手는 나팔수(쇄납수), 징수, 장고수, 북수, 소고(범고)수 등으로 가락을 연주하며 놀이를 한다.

雜色은 樂器를 들지않고 뒤에서 劇놀이나 잡회를 하는 치배를 말하는 것으로, 호남지역에서 주로 발달되어 있다. 편성은 고장에 따라 다르나, 남쪽은 1~10種, 북쪽은 1~3種으로, 잡색이 없는 지역도 있다.

舞童은 神童으로 人態神格으로 보며, 경기, 강릉지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대포수는 무속의 捕鬼手가 大砲手, 大捕手로 변형된 것이라 보아지며,¹³⁾ 그외, 양반, 중, 각시, 화동, 창부, 농구 등이 등장하며, 이는 산대극 계통의 탈놀이에서도 볼 수 있다.

필봉농악의 편성인원을 살펴보면, 기본편성인 영기수(2), 나팔수(1), 상쇠(1), 부쇠(2), 징수

〈표 1〉 각 지역별 편성인원(현장조사)

등장인물 지역	용기수	농기수	영기수	나채 나팔수	상 쇠	부종 쇠	징 수	장고 수	북 수	소법고 수(아)	무동 (아)	대포 수	조리중	양 반	각 시	화 동	창 부	중 애	집 사	농 구	농 부	열상 두발모
평택		1	2	1	1	2	2	4	3	12	6			1				2			1	1
강릉		2		1	1	2	3	2	3	18 (1)	9 (1)											1
진주		1	2	1	1	2	2	3	2	10		1		1						1		1
이리	1	1	2	1	1	3	4	7	2	11	2	1		1			1					
필봉			2		1	2	3	3	2	12	1	2	1	1	1	1	1					

(3), 장고수(3), 북수(2), 소고수(12), 이 외에 잡색으로 무동(1), 대포수(2), 조리중(1), 양반(1), 각시(1), 화동(1), 창부(1)가 등장한다.

旗에 있어, 龍旗, 農旗, 令旗가 있으나 용기와 농기는 기수가 없고, 영기수만 있는 특징이 있으며, 잡색이 다양하게 갖추어진 典型的인 좌도농악이다. 호남지방은 탈놀이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농악의 극놀이가 더욱 발달되어 있는 곳이며, 또한 필봉농악은 지역상 경상도와 인접한 관계로 영남농악의 편성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필봉농악의 편성과 타지역의 편성인원들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C. 旗

농악대의 편성에 있어, 맨 앞에 서서 전체 농악을 주도하는 旗는 농악에서 차지하는 의미 내지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놀이의 흥을 돋구어 주는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旗는 神體로써의 기능을 가지며 농악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旗는 대체로 農旗와 令旗로 나뉘며, 농기는 風雨를 조절한다는 龍을 그려 呪術的 기능으로 사용되는 大旗, 즉 龍旗와 「農者天下之大本」 「神農遺業」이라 써있는 小旗로 나뉜다.

令旗는 두레農樂時 지휘기로, 法旗의 기능을 가지며, 軍旗나 法旗의 기능 이외에 厄막이의 주술적 기능을 갖고 있다. 원래, 軍旗로서의 영기는 정방형이었으나, 근래에는 대부분 삼각형, 혹은 사각형으로, 흑, 백, 청, 홍색 바탕에 令字가 쓰여있다.

대체로 旗는 전국적으로 같은 형태를 보여주나, 다는 방법과 색채 사용에 있어 지역적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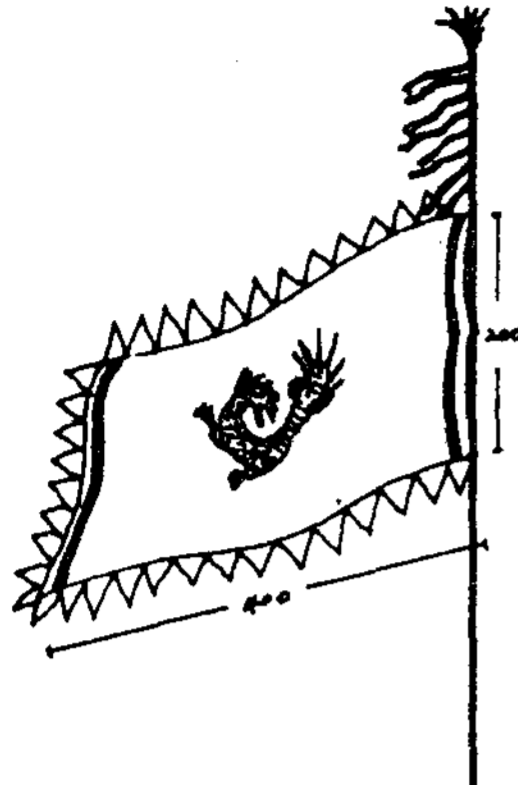
龍旗는 호남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旗로 그 외 지역에서는 農旗로 대신하고 있으며, 강릉지역은 令旗가 없는 특징이 있다.

필봉농악의 旗에는 농기, 용기, 영기가 있으며, 용기는 깃봉에 평장목이 달렸고, 깃대 위에 여러 색의 버래줄이 달렸으며, 깃쪽에 황색 용무늬가 있고 깃발은 삼각형으로 흑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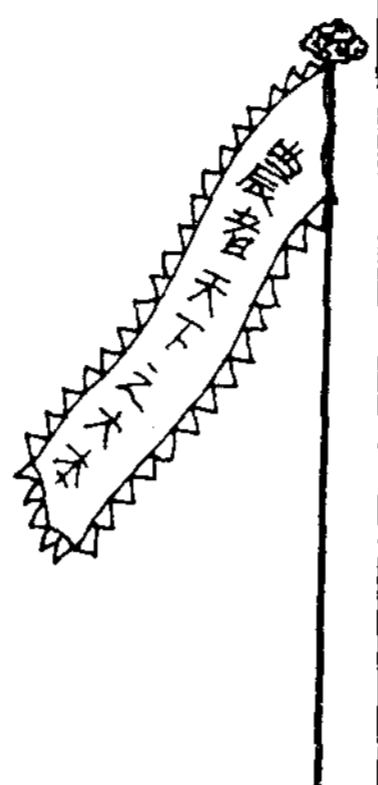
농기는 깃봉에 홍색 꽃을 달며 흰 기폭에 “農

〈표 2〉

	旗類	형 태	무늬·글	색			특 징	기 타
				바탕	무늬 글	깃발		
(호남 좌도) 필 봉	龍旗	직사각형 깃봉: 평장목, 버래줄, 지 네발	龍	백	황	흑	• 황용 • 가로기 • 여러색의 버래줄(청·홍· 백) 달림	• 호남지역은 용기, 농기, 영기 갖추 고 기다는 법 일치
	農旗	직사각형 깃봉: 지네발, 조화	「農者天下 之大本」	백	흑	홍	• 가로달림 • 깃봉으로 조화꽃(홍색)달림	
	令旗	사각형 깃봉: 늦쇠, 백지, 깃발	令	백	홍		• 삼지창대신 늦쇠와 백지끼움 • 1쌍	



필봉 용기
〈도 2〉



농기
〈도 3〉



영기
〈도 4〉



〈도 5〉

〈도 6〉

〈도 7〉

〈도 8〉

者天下之大本”이라 한자로 쓰여 있으며 홍색 지네발이 달렸으며 기는 가로로 달렸고, 기수가 없다.

영기는 깃봉으로 낫쇠접시 사이에 백지를 늘이며, 중앙에 솜자를 쓴 1쌍의 백색 기로 호남 지역은 용기, 농기, 영기를 다 갖추고 있으며, 기 다는 방법에 있어 일치하고 있다.

D. 필봉농악 복식의 유형

필봉리 농악공연을 현장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과 현재 농악복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그 異同을 밝히고 그 특징을 정리해 본다.

편성인원을 대별해 보면,

- ① 農樂을 상징하는 旗를 든 旗手들과 나팔수, 쇠납수.

〈표 3〉 筆峰農樂 編成人員의 服飾¹⁴⁾

		服				飾				기	타			
		帽	색	服	색	표	의	색	수	식	색			
기수	영기수	전 립 패랭이		저고리 바 지	〃	더그레							쇠옷(저고리, 바지)	
樂手	나팔수	〃		〃	〃									
	상 쇠	전 립 (부포(들) 상모)		〃	〃	반소매, 동 고리 동지기	홍	삼색드림 삼색띠	청·홍·황				소매끝에 오색 간지동 단다. 물채없는 부포상모	
	부 쇠			〃	〃	〃	〃	삼색띠	청·홍·황				소매끝에 오색 간지동	
	종 쇠			〃	〃	〃	〃	이색띠					2색띠 매기도 한다.	
	징 수	고 깔 부포상모	〃	〃	〃	〃	〃	〃	〃	〃	〃	〃	장고수, 북수와 같다.	
	장고수	고 깔 부들상모	〃	〃	〃	〃	〃	〃	〃	〃	〃	〃	범고수, 북수와 같다.	
	범고수	고 깔 채상모	〃	〃	〃	〃	〃	삼색띠 일색띠	〃	〃	〃	〃	원래는 채상모를 쓴다. 장고수와 같다.	
북 수	고 깔 부들상모			〃	〃	〃	〃	삼색띠 일색띠	〃	〃	〃	장고수와 같다.		
잡색	무 동	고 깔		〃	〃	쾌 자	청	색 띠					수건을 든다.	
	조리중	송 낙 (조리)		〃	〃	장 삼 색두루마기							바람을 진다.	
	대포수	대포수관 털병치		〃	〃	첼 릿 동지기	분홍						대포수 망태에 조총, 토끼털 단 다. 등에는 '大將軍'이라 쓴다.	
	양 반	정자관 수 건	백	〃	〃	도 포							수염, 세조대, 담뱃대, 부채 수건을 든다.	
	각 시			적고리 치 마	황									
				저고리 치 마	백									
	창 부	초 립		저고리 바 지	백	창 옷	청							창옷袖口—노랑끝동 초립대신 패 랭이도 쓴다. 초립에 평장목 한 쌍 꿇는다.
화 동	초 립 (평꼬리)		〃	〃	〃	〃	홍						평꼬리 2개 꿇는 초립	
농 구	부포상모		〃	〃	반소매 —동고리	〃							상쇠모의(상쇠후보자) 쇠채든다.	

② 農樂을 지휘하는 상쇠와 부쇠, 종쇠 등의 쇠잡이들.

③ 징수, 장고수, 북수, 소고수들의 樂手들.

④ 劇놀이나 舞童놀이를 이끄는 雜色들, 舞童, 조리중, 대포수, 양반, 倡夫, 花童, 각시, 집사 ... 등이 포함된다.

위의 편성인원들의 복식형태를 문헌과 비교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4〉에 나타난 편성인원들의 복식을 정리해 보면,

① 旗手는 令旗手만 있으며, 고깔을 쓰고 흰 색 바지 저고리 위에 청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

1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농악, 호남농악, 한국의 민속예술 참조.

〈표 4〉 現場調査한 服飾

	服 飾									기 타
	帽	색	服	색	표 의	색	수 식	색		
기수	영기수	고 갈		저고리 바 지	백	조 끼	청	삼색띠		
樂手	상 쇠	전 립 (부포)	흑			더그레 (색동소매)	흑 (황·홍 녹·청)		청·홍 ·황	
	부 쇠	"	"	"	"	"	"	"	"	
	중 쇠	"	"	"	"	"	"	"	"	
	징 수	고 갈	황·청 홍·백	"	"	조 끼	청	"	"	
	장고수 법고수	"	"	"	"	"	"	"	"	고갈에서 채상모 썼다가 다시 고갈로 됨.
	북 수	"	"	"	"	"	"	"	"	
잡색	무 동	"	"	저고리 바 지	백 연보라	쾌 자	청	색 띠	홍	허리에만 띠 맨다.
	조리중 대포수	송 낙 대포수관	홍·갈 흑·녹 황·홍	"	백	주 의 홍동지기	옥	다릿바	홍	송낙 끝에 홍꽃이 매달림 망태에 평깃이나 토끼젖질달고 목총을 든다. 2명 등장 녹색 세조대, 부채, 담뱃대
	양 반	정자관	흑	저고리 바 지	"	도 포	백			
	각 시	고 갈	홍·황 녹·백	저고리 치 마	홍					흰 수건을 든다.
	창 부	초 립 (평깃)		저고리 바 지	백	창 옷	청 황			남자가 여장을 한다. · 목에 황색띠 감는다. · 등에 軍자를 쓰기도 함. · 황색 ; 袖口, 領, 裾 · 청색 ; 袖口, 領, 襟, 裾
	화 동	초 립 (평깃)		"	"	창 옷	홍 청			

를 맨다.

② 상쇠는 부포가 달린 흑전립에 흰색 바지 저고리와 색동소매가 달린 더그레를 입고, 삼색 띠를 맨다. 부쇠<도 5>와 중쇠도 상쇠와 같은 복식이다.

③ 징수<도 6>, 장고수<도 7>, 법고수<도 8> 들은 고갈을 쓰고 흰 바지 저고리 위에 청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를 맨다.

④ 잡색들의 服飾이 다양하며, 비교적 古形이 잘 유지되어 있는 형태이다. 조리중<도 9>은 송낙을 쓰고 흰 바지 저고리 위에 옥색 周衣를 입고 바랑을 진다. 대포수<도 10>는 대포수관을

쓰고 색동소매가 달린 홍동지기를 입고 왼쪽 무릎에 홍색 다릿바를 매며 평이 달린 망태를 매고 목총을 든다.

倡夫<도 11>는 평깃이 달린 草笠을 쓰고 흰색 바지 저고리 위에 황색 襟이 달린 청창옷을 입으며, 앞여밈은 홍색 끈으로 두 군데 묶은 형태로 목에 황색띠를 감는다. 花童은 倡夫와 같은 초립을 쓰고 흰 바지 저고리 위에 청색 襟이 달린 홍창옷을 입는다. 양반은 정자관을 쓰고 바지 저고리 위에 도포를 입으며, 각시는 고갈을 쓰고 저고리 치마를 입으며 흰 수건을 들고, 남자가 여장을 한다. 무동<도 12>은 12세 정도의

어린이가 고깔에 바지 저고리, 쾌자를 입고, 홍색띠를 허리에 맨다.

편성인원들의 冠帽, 服飾, 色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農樂에 있어 관모는 戰笠, 상모, 병거지, 돌모¹⁵⁾라 칭하며 쇠잡이들이 주로 착용한다. 필봉농악에서 상쇠를 비롯한 쇠잡이들은 흑색 머리수건<도 13-a> 위에 흰 꽃수건<도 13-b>을 매고 그 위에 부포상모를 쓰며 나머지 樂手들인 북, 징, 장고, 범고수들과 무동은 황, 청, 백, 홍색 꽃이 달린 고깔을 쓴다.

잠색들은 특징적인 관모를 쓰는데, 조리중이

쓰는 송낙<도 14>은 '조리'라 부르며 짚으로 엮어 홍색 꽃을 달았으며, 倡夫와 花童은 홍색 머리수건 위에 평깃이 달린 초립<도 15>을 쓰며, 양쪽에 평깃을 꽂는다. 대포수의 冠<도 16>은 검정종이로 모양으로 만들어 '大將軍'이라 쓰고 대나무 대를 양쪽에 세워 홍, 녹, 황색 천으로 묶어 위 부분을 연결해 竹竿사이에 종이꽃을 여러개 달며, 양쪽 대에 3개씩 고리를 매단다.

2. 服飾에 있어서, 필봉지역은 保守性을 잘 유지한 左道農樂의 대표로 右道에 비해 服飾이 간소하다.

원래 湖南農樂의 쇠옷은 홍동지기, 바지,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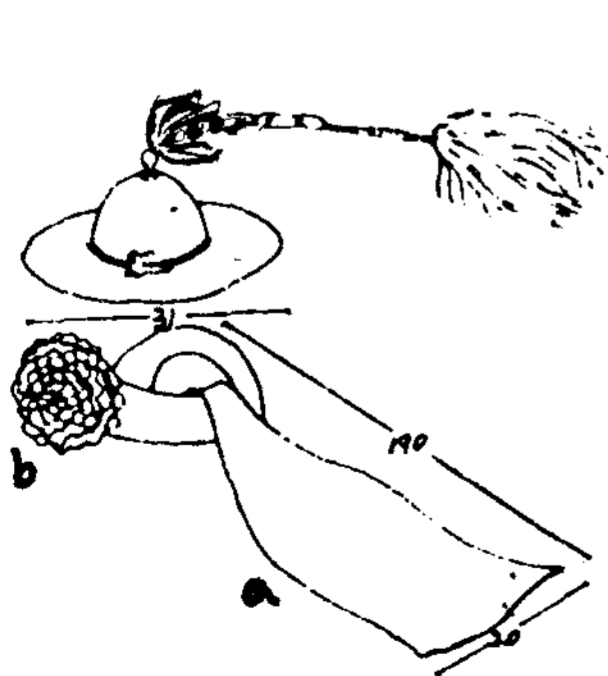


<도 9>

<도 10>

<도 11>

<도 12>



<도 13>



<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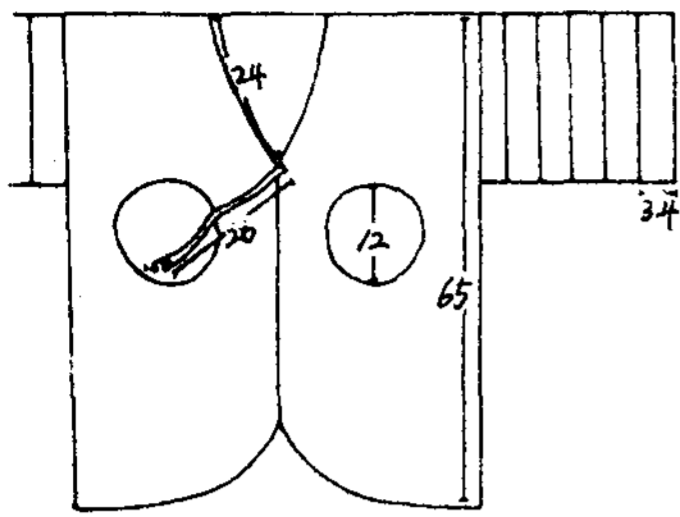


<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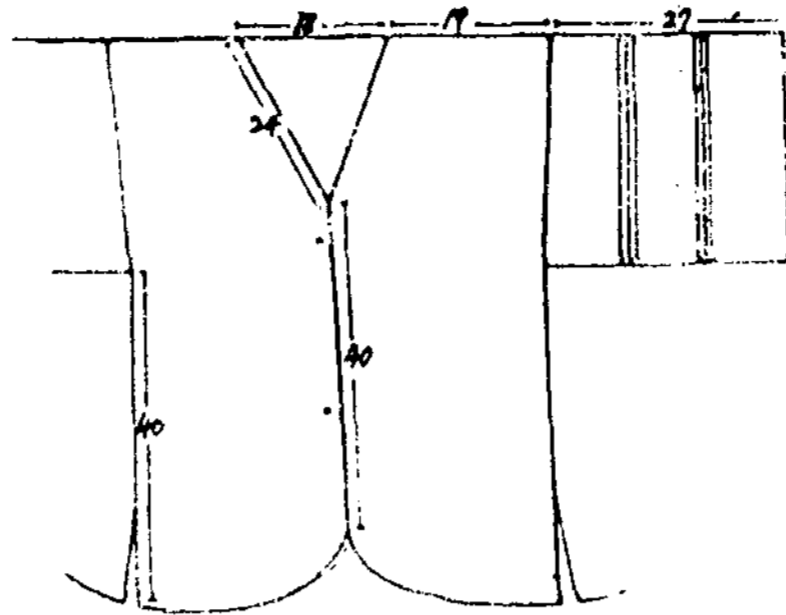


<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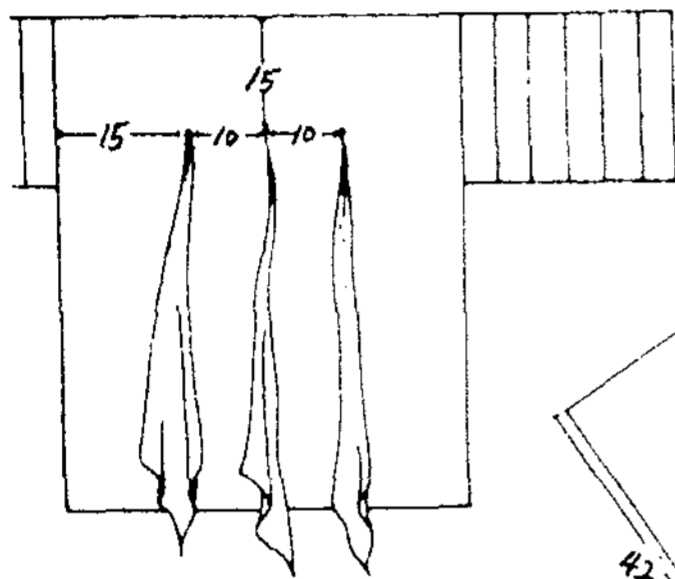
15) 沈載完, 李殷昌, 「한국의 관모」, 영남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p.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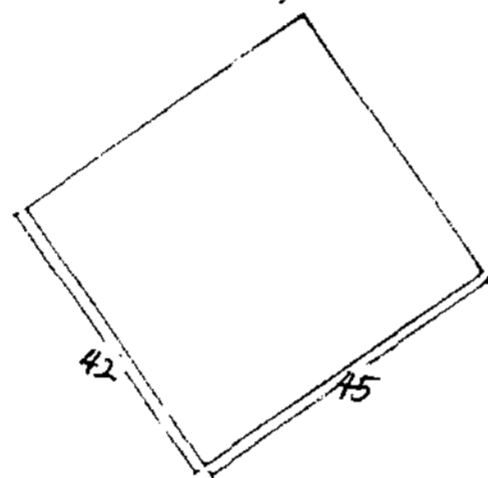
<도 17>



<도 19>



<도 18>



<도 20>

발, 짚신, 테대님, 머리수건, 색띠를 말하며, 팔에 까치등을 달고 가슴과 등에 일광, 월광<도 17>을 붙이고 색수건(색드림)<도 18>을 달았으나, 변화하여 까치등이나 월광은 달지 않고, 등에 붙이던 색수건을 앞으로 X자 모양으로 매어 지위의 차에 따라 삼색, 이색, 일색 등의 청, 홍, 황색 띠를 매었다 한다. 그러나, 필봉지역에서는 쇠잡이들이 흥동지기 대신 색동소매가 달린 흥동지기<도 19>를 입었으며, 색드림 대신 삼색띠를 X자로 전원이 매고 있다. 그러나 湖南右道 農樂인 裡里지역의 상쇠는 일광을 가슴에 붙이고 색드림을 등에 착용하고 있다<도 20>. 필봉지역의 쇠잡이와 잡색을 제외한 全樂手는 무명으로 된 기본 한복인 바지 저고리 위에 청색 조끼를 입고 삼색 띠를 매며 嶺南, 嶺東지역과는 달리 행전을 치지 않는다.

그 외, 잡색들의 服色은 화려하다. 대포수는 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포수의 흥동지기<도 21>의 앞여밈을 예전에는 매듭으로 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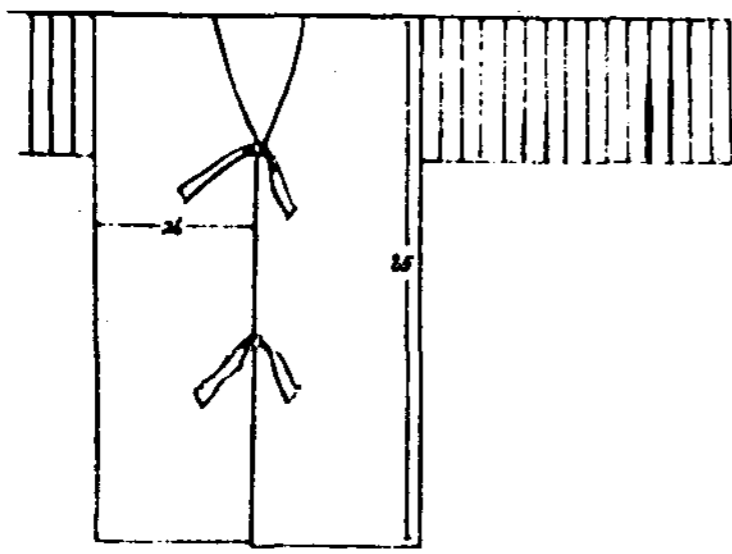
고 하나, 근래에는 끈으로 묶으며, 흥동지기를 짧고 꼭 끼게 입었다고 하나 사망시 태우기 때문에 유품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¹⁶⁾ 조리중의 송낙이 특징적이며, 창부의 청창옷<도 22>의 袖口, 領, 裾에 황색 襖을 두른 특징이 있으며, 軍자를 황색으로 등에 썼으나,¹⁷⁾ 이번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다. 花童의 청색 襖을 두른 흥창옷<도 23>이 특징적이다. 농구는 원래 있었다고 하나 공연시 편성되지 않았다.

3. 색띠에 있어 雜色을 제외한 전원이 청, 홍, 황색의 띠를 매며, 띠는 대개 길이 360cm, 폭 35cm 가량 된다. 색띠매는 방법에 있어, 원래는 뒤쪽 중앙에 층층이 매는 방법<도 24>이었다고 하나, 필봉지역에서는 X자로 오른쪽 어깨에 홍색, 왼쪽 어깨에 황색 띠를 매며, 청색 허리 띠를 맨다<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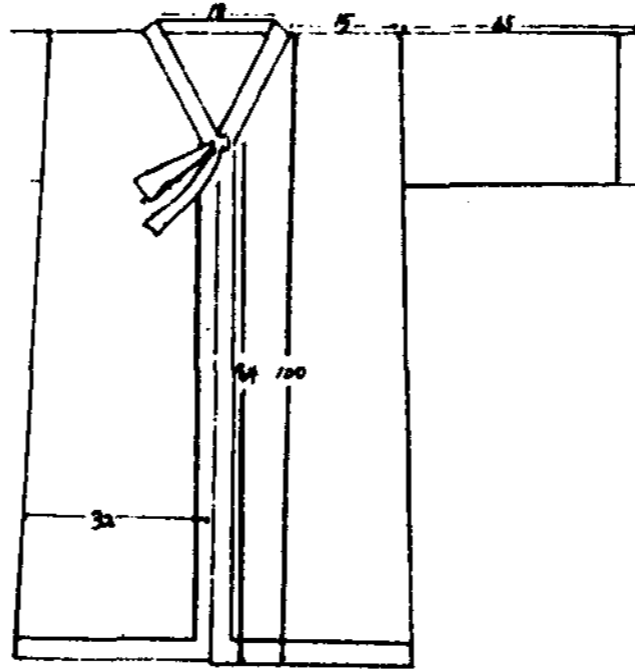
타지역과 달리 특징적인 띠의 사용을 볼 수 있는데, 대포수 무릎의 홍색 다릿바, 倡夫의 황색 띠, 창부와 화동의 홍색 머리수건 등을 들 수

16) 박순기 면담, 필봉농악 대포수, 1988.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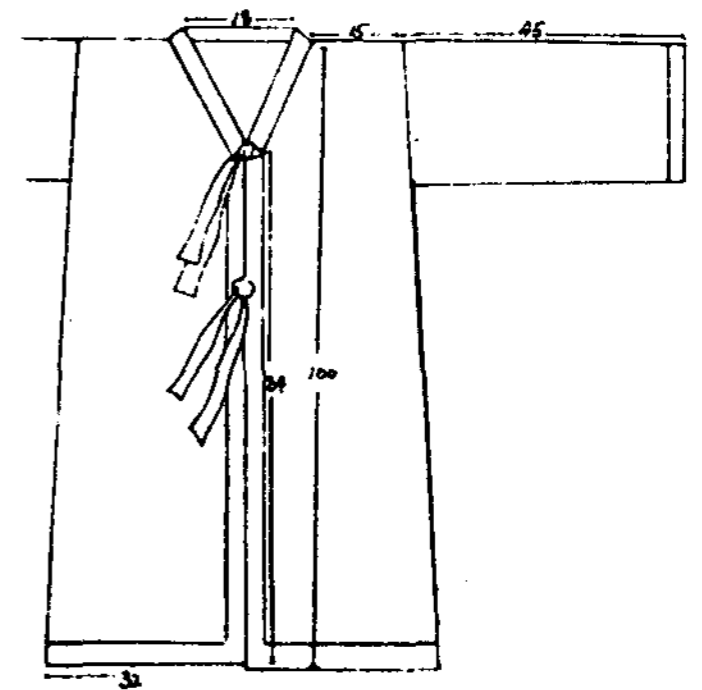
17) 필봉농악 film 문예진흥원 소장.



<도 21>



<도 22>



<도 23>



<도 24>

<도 25>

있다.

<표 3> <표 4>을 비교해 보면, 冠帽에 있어 전원이 戰笠¹⁸⁾을 쓰며, 부포상모,¹⁹⁾ 채상모²⁰⁾를 썼다고 문헌에서는 밝히고 있으나, 근래에는 쇠쟁이들만 부포상모를 쓴다.

고깔은 원래 장고수, 법고수만 썼다고 하나 경상도의 영향으로 채상모를 쓰다가 근래에는 全樂手가 고깔을 쓴다.

服飾에 있어 쇠쟁이들은 붉은 반소매 동고리

에 五色간지동을 달고, 三色드림의 기록²¹⁾과는 달리, 근래에는 쇠쟁이들만 흑동지기를 입고, 三色띠를 매며, 나머지 樂手들은 청색 조끼에 색띠를 맨다. 각시는 수건을 썼다고 하나, 근래에는 고깔을 쓴다.

조사결과,

필봉지역의 服飾은 ① 비교적 보수성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湖南右道에 비해 간소한 편이나, 잡색의 다양한 복식으로 인해 다른 지역 보다는 화려함을 보여준다. ② 雜色을 제외한 전원이 고깔이나 전립을 쓰고 韓服의 基本服飾인 바지 저고리를 입으며, 그 위에 三色띠를 맨다. ③ 색띠(청, 홍, 황색띠)의 사용과 거의 색채사용(청, 홍, 황), 가로로 기를 다는 법, 전립아래 흑색 머리수건의 사용, 흑동지기와 청색 조끼의 착용, 행전을 착용하지 않는 점 등은 嶺南, 嶺東 지역과 다르나, 京畿, 湖南右道지역과는 일치함을 보여준다. 반면, 녹, 홍, 황색의 사용, 백색 머리수건의 사용, 더그레를 걸치지 않는 점 행전을 착용하는 점 등은 嶺南, 嶺東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④ 다른 지역의 服飾과 같이 고깔, 띠, 전립, 더그레, 令旗, 쾌자와 같은 요소들은 巫俗, 佛敎, 軍的 要素들이 융합되어 나타난다.

筆峰農樂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冠帽인 상모와 고깔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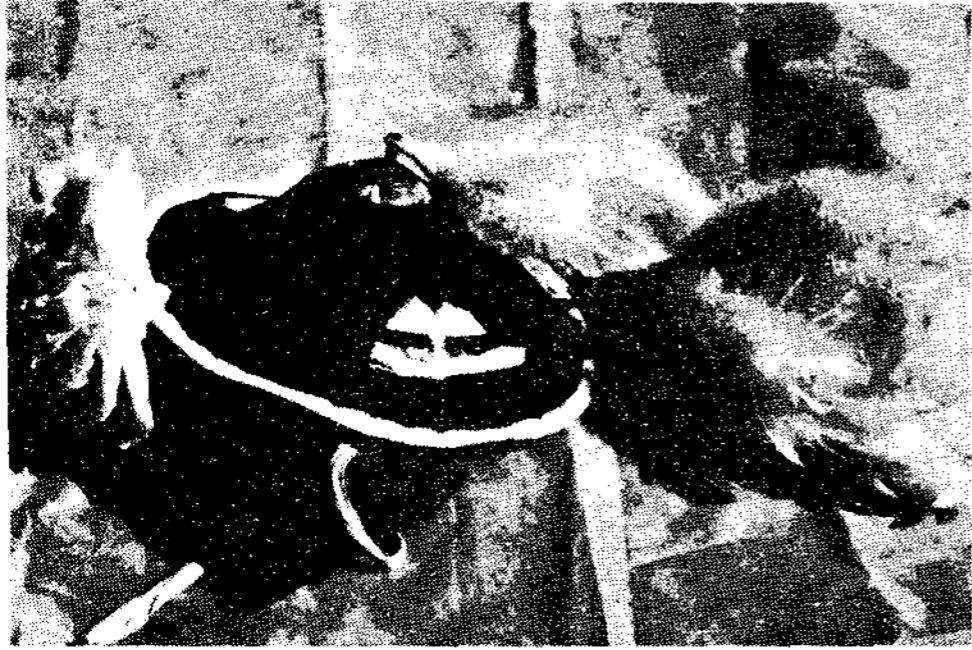
18) 홍현식, 김천홍, 박헌봉, p. 33.

19) 정병호, 이보형,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농악, 풍어제, 민요편)

20) 홍현식, 김천홍, 박헌봉, p. 35.

21) 정병호, 이보형, p.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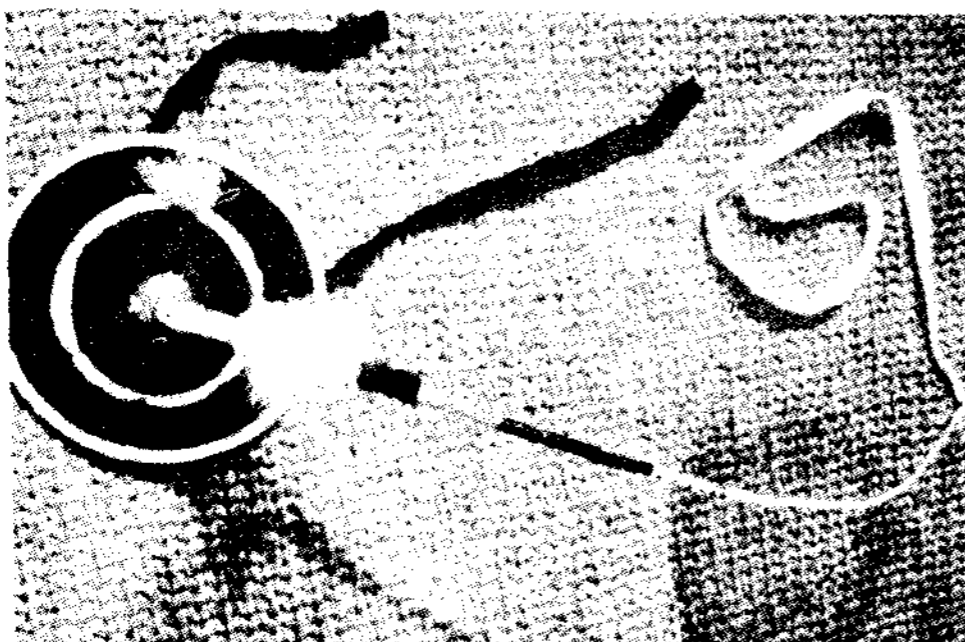
상모에는 부포상모<도 26>, 부들상모<도 27>, 채상모<도 28>, 땃상모<도 29>, 땃치기상모, 열두발상모<도 30> 등이 있다.



<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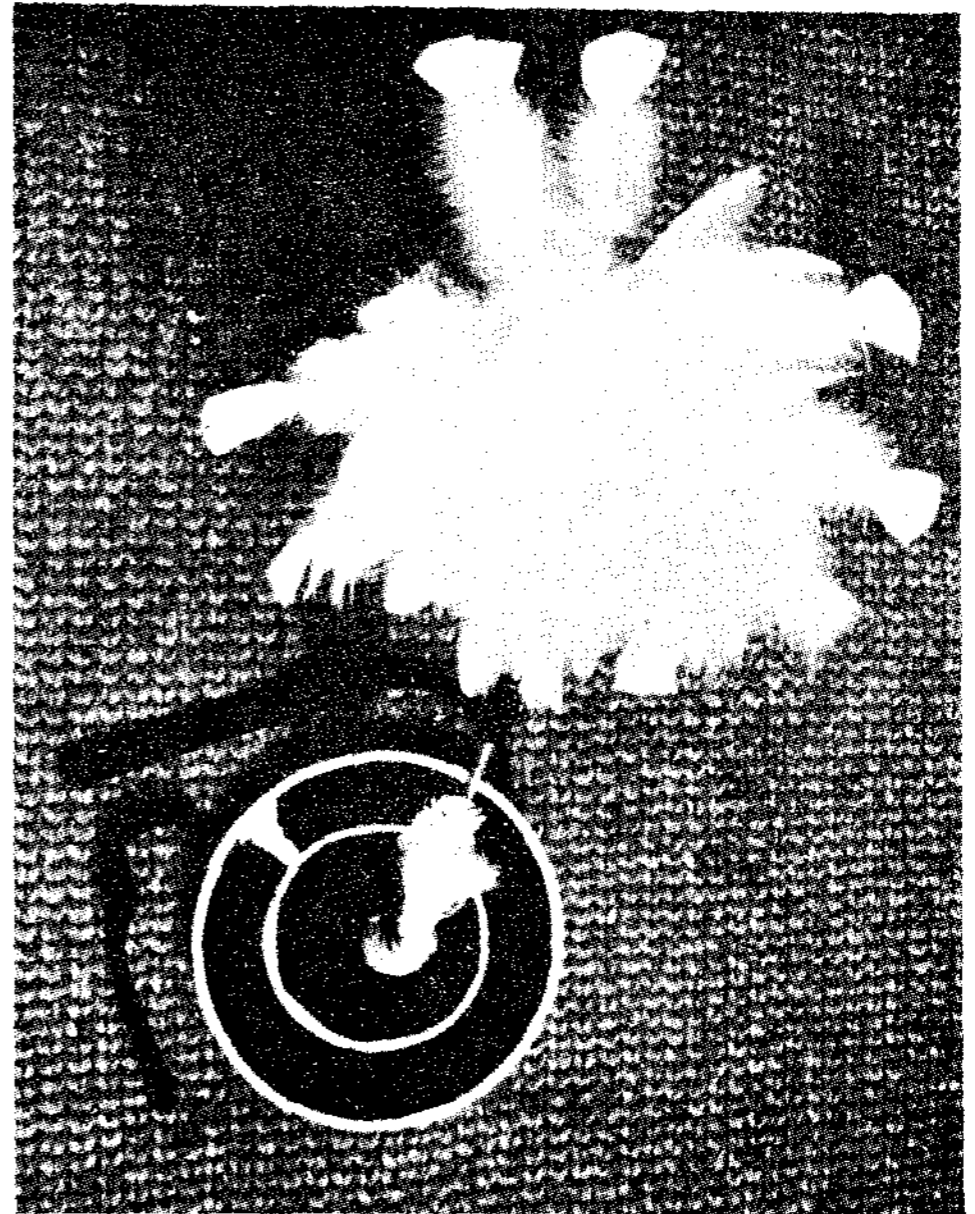


<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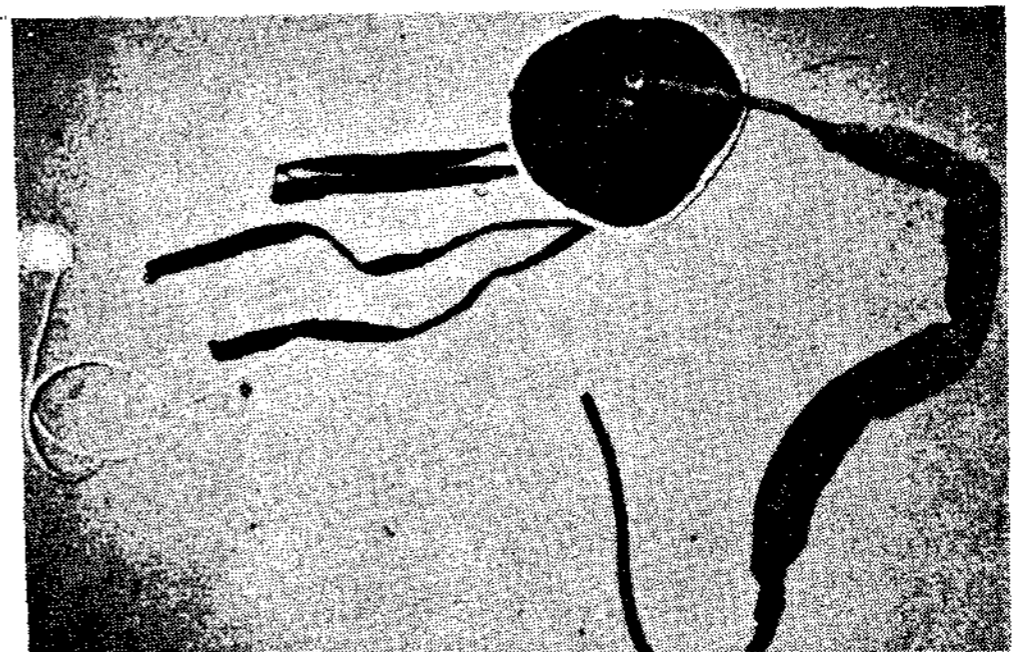


<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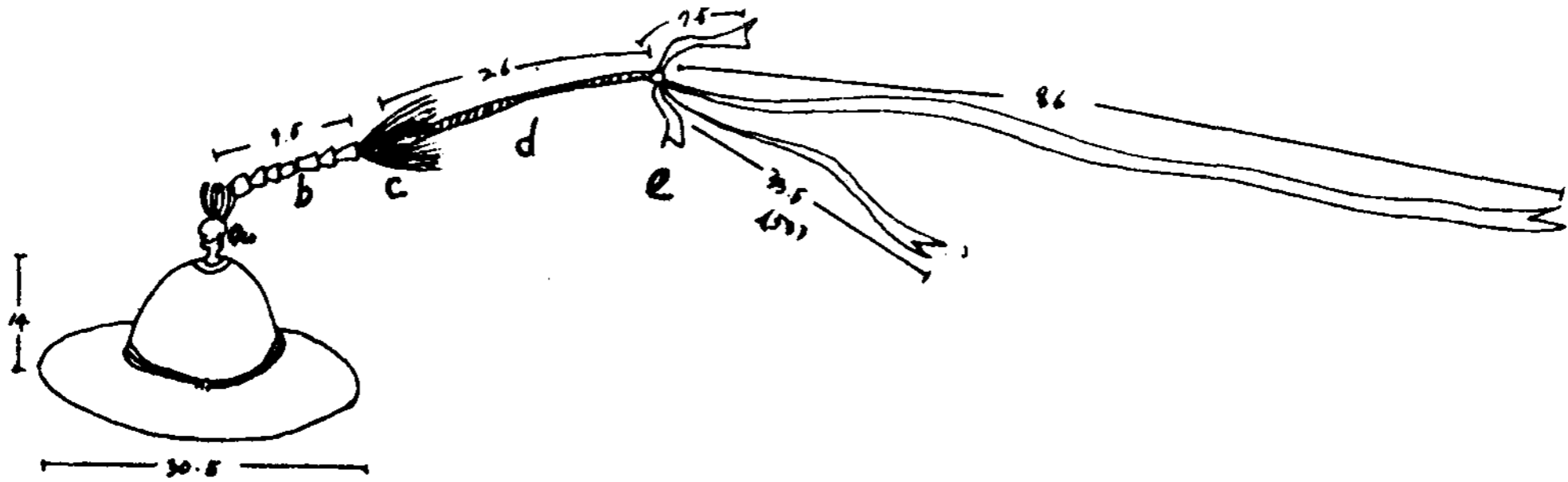
이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戰笠의 운두에 나무로 만든 징자(a)를 달고 돌대인 용두를 단 후, 굵은 무명끈으로 연결해 백, 홍, 청, 녹색의 적자(구슬)(b)를 달고 물체에 연결시킨다. 적자와 물체 사이에 중등부포(c)를 달기도 하며, 물체(d)는 노끈을 꼬아 색비닐을 감거나, 부드럽게 돌릴 수 있게끔 자전거살에 낚시줄을 연결해 그 위를 비닐로 싸기도 한다. 다음, 물체에 한지로 만든 상모지나 부포(e)를 연결하며 물체의 길이는 상모에 따라 다르다. 부포상모는 칠면조털 혹은 비닐이나 종이를 가늘게 썰어 달기도 하며 연결부위는 색테이프로 감는다<도 31>.



<도 29>



<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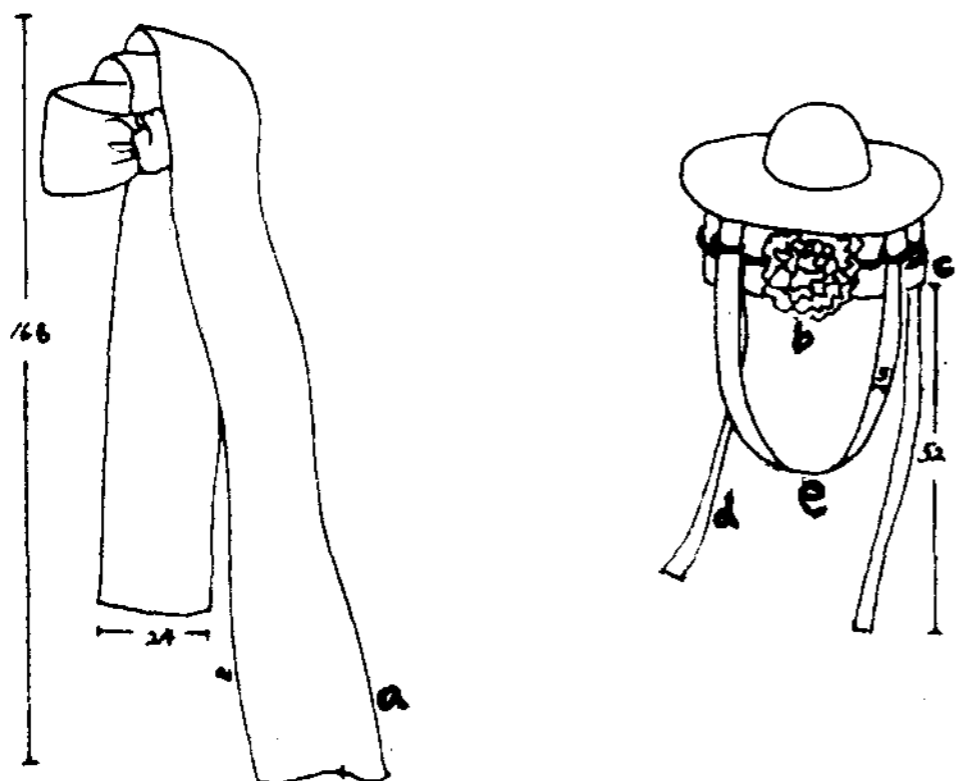
<도 31>

이러한 상모들은 운반에 편리하도록 帽부분, 적자와 중등부포부분, 물채와 상모저부분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모를 쓰는 방법은 ① 앞머리 수건(a)을 매고 ② 그 위에 홍색 꽃수건(b)을 맨 후 ③ 이 위에 전립을 쓴다. ④ 이망겘이(c)로 테끈(d)을

걸어서 한번 꼬아준 후, 뒤로 돌려서 머리 뒤편에 묶는다. ⑤ 다음 테끈을 턱아래 묶으며, (e)는 훈령끈이라고 한다<도 32>.

원래 고깔은 僧徒의 巾을 方言으로 曲葛이라 한다고 기록²²⁾되어 있는 것으로, 농악에 있어 고깔은 청, 홍, 황, 녹백색 등의 꽃이 달려 있으며, 북쪽보다 남쪽의 꽃이 크며 수가 적은 경향이



<도 32>



<도 34>



<도 33>



22)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95.

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고깔의 종류를 보면 <도 33, 34, 35>와 같다.

Ⅳ. 農樂服飾의 造形的 特徵

A. 美的 特徵

농악현장을 조사한 자료내용을 중심으로 美的 特徵을 정리해 보면, 첫째 場所에 있어 농악놀이는 자연을 배경으로 넓은 野外空間이나 마당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空間的 要素인 背景은 實體에 대해 미묘한 상호작용을 하며, 전체적 효과에 중요한 역할²³⁾을 하게 되고, 특히 自然속 에 나타나는 服色이나 龍旗, 農旗, 令旗 등의 깃발과 행렬은 강렬한 色彩對比를 이루고 있으며, 正月 대보름이나 한가위 밤에 演劇되기 때문에 불빛속의 原色들은 원초적인 原始性을 보여준다.

둘째, 춤의 특징은 투박한 單純美, 독특한 曲線美, 점과 선의 調和美로 表現되며, 원형 또는 태극형을 이룬다.

또한, 服飾外部의 線인 상모놀이는 원래 군사적 신호 혹은 소리나는 가축과 실을 머리에 매고 돌림으로써 짐승이나 적을 현혹시킨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²⁴⁾ 다양한 원선들은 공간속에 현대적 조형미인 線의 美를 보여준다.

B. 服飾의 造形的 特徵

服飾에 있어 조형적 특징은 일상생활에 착용되는 生活服飾을 이용한 實用服飾 위에, 색띠를 이용한 단순한 착장방법에 의한 다양한 리듬감의 表現이며, 이 점은 마당놀이로서의 공연장소에 따른 동작확산의 美的 表現性을 갖춘 舞臺衣裳이라 볼 수 있다.

農樂服飾을 통해 나타나는 線의 表現을 보면, 기본복식인 바지 저고리를 통해 나타나는 直線과 曲線의 조화이외에 X선을 이용한 색띠의 운동감있는 斜線의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服飾外部의 線으로 고깔의 삼각선과 상모지의 돌림에 의해 표현되는 공간속의 圓線들은 순간마다 변화되는 우아한 線의 美를 표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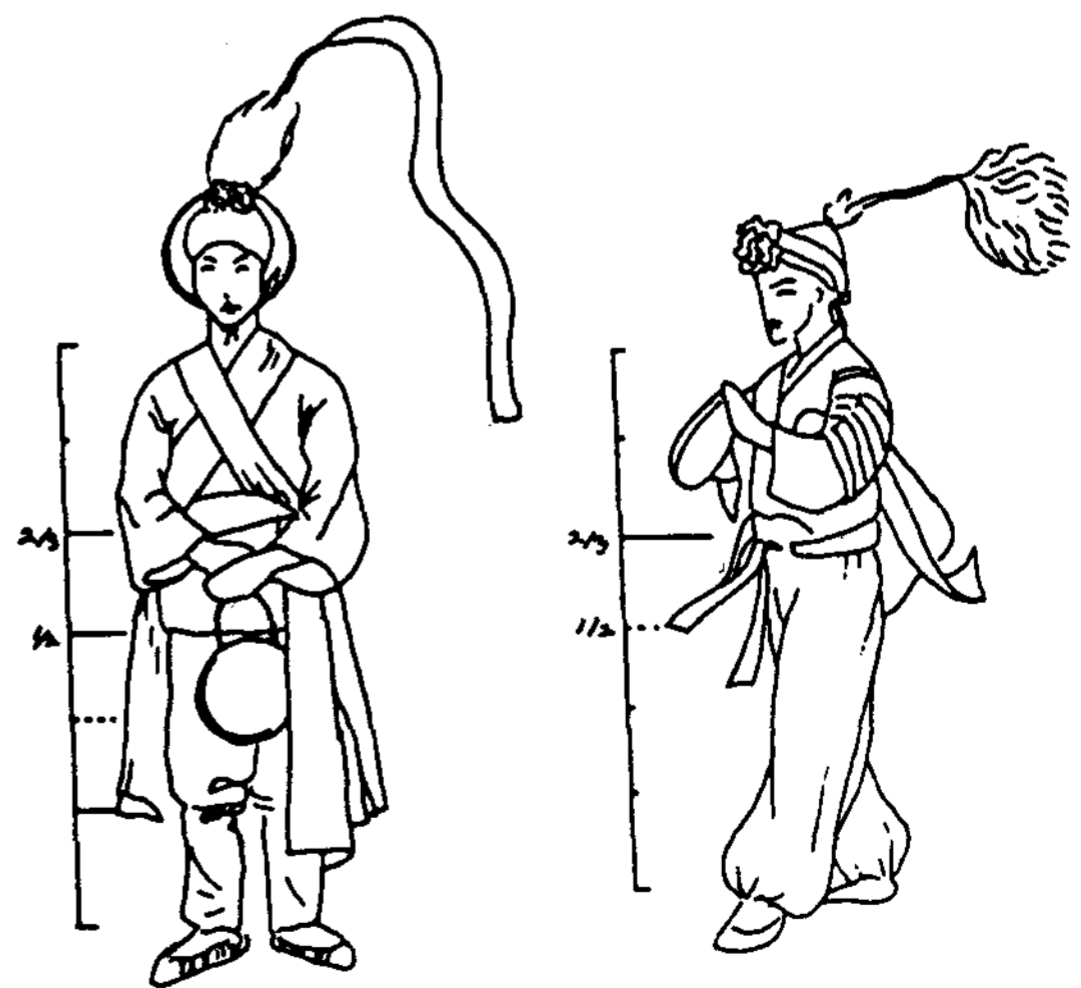
色彩에 있어 農樂服飾에서 나타나는 홍, 청, 황, 백, 흑의 五色은 상고시대이래 陰陽五行說에 의한 동양의 관념색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服飾에 있어 각 지역별 색채비교를 해 본 결과, 색의 사용은 白色을 기본으로 靑>紅>黑>黃>綠色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각 지역별 색채 기호를 알 수 있다.

녹색은 江陵, 晉州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平澤지역은 靑色과 綠色 개념의 혼돈을 보여주고, 湖南지역에서는 靑色을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旗에 있어서도 色의 일치를 보여준다. 湖南左·右道 服飾의 色彩가 가장 화려하며, 특히 흑색 더그레 위에 겹쳐지는 三原色은 現代的 感覺을 보여주는 색배합이다.

質感은 조형예술중 촉각과 연관이 크며 연상에 의해 視覺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農樂服飾의 質感은 대부분 면(필봉), 광목, 삼베(강릉) 등을 이용한 기본 복식 위에 염색한 合成纖維의 색띠를 매므로 소박한 自然美를 보여준다.

農樂服飾을 통해 나타나는 比例<도 36, 37>를 보면, 저고리와 바지는 1:1의 比例로 美的이라 할 수 없으나, 가름띠(허리띠)에 의한 錯視效果로 上下 2:4의 비율을 보여주며, 下는 지역에 따라 행진으로 比例를 보완한다.



<도 36>

<도 37>

23) 정시화, 현대디자인 연구, p. 91.

24) 정병호, "농악예능의 상징성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

그 외에 색띠는 신체의 2.2배 가량의 길이로 폭에 따라 감각이 달라져 보인다.

均衡에 있어 색띠는 좌우대칭을 이루나, 상하 비대칭을 이루며, 얼굴을 가릴만큼 큰 고깔은 꽃송이까지 달려 上重下輕을 보여준다.

農樂服飾을 통해 나타나는 리듬감은 색띠에 의한 다양한 리듬감과 상모돌리기에 의해 공간 속에 나타나는 圓線들의 리듬감, 더그레, 색동소매의 리듬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본 내용을 중심으로, 農樂服飾에서 보여주는 조형적 特徵을 정리해 보면,

- ① 상모돌리기 등에 의한 율동적이고 과감한 線의 美
- ② 소재의 自然美
- ③ 투박한 서민적 單純美와 無기교성
- ④ 굵고 단순·대담한 색띠의 표현
- ⑤ 착장방법에 따른 다양한 리듬감 등을 볼 수 있으며, 農樂의 服飾은 線의 藝術의 표현으로, 民族의 미의식을 복식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고 본다.

C. 보완되는 제안

현장조사를 통해 農樂服飾이 갖고있는 문제점을 제안해 보면, 색띠매는 방법, 넓이, 길이에 대한 통일과 값싼 섬유적 경박성으로 부티의 탈피가 필요하며, 服飾, 冠帽, 색띠, 소도구 등의 美化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각 지역 服飾의 율동적 변화를 막고, 지역적 특성 유지의 노력이 필요하며, 복식에 대한 대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통일성의 결여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V. 結 論

本 論文은 民俗藝術의 최대분야인 農樂의 服飾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재평가와 美的 特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해 연구된 것이다.

傳統的 놀이服飾으로서의 農樂服飾은 단순한 착장구성에 의한 다양한 리듬감의 표현을 가능케 한 놀이服飾으로 우리 民族文化의 배경인 巫俗과 불교, 軍의 요소 등이 습합되어 있는 服飾이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美的 特徵은 한국의

예술을 대표하는 線의 藝術이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農樂服飾을 통해,

- ① 공간 속의 율동적 圓線의 조형미
- ② 五方色의 色彩배합
- ③ 소재의 自然美
- ④ 투박한 서민적 單純美와 無技巧性
- ⑤ 착장방법에 따른 다양한 리듬감 등의 표현을 가능케 한 造形的 要素를 갖춘 놀이服飾으로 이 정리를 통해 服飾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점차 傳統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전통놀이 服飾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리는 앞으로 연구과제로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참 고 문 헌

- 김양곤(1981), 「무용의 탐구」 서울; 韓國廣 개발원
- 김천홍, 박현봉, 홍현식(1967년 9월), 「호남농악」,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33호, 문교부문화재관리국
- 金宅圭(1985),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孫容培, “농악의 역사적 고찰,” 「무용한국」 제20호(1986년 5월)
- 송석하(1963), 「韓國民俗考」 서울; 일신사.
- 沈載完, 李殷昌(1972), 「韓國의 冠帽」, 영남대학교 신라·가야문화연구소
- 유희경(1975), 「한국 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보형(1982), 「한국민속대관」 제5권(민속예술, 생활기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보형, 정병호(198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농악, 풍어제, 민요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임동권(1971), 「한국민속학논고」, 서울; 宣明출판사
- 정병호(1986), 「농악」, 서울; 열화당
- , “농악예능의 상징성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 임동권 頌壽기념논문집(1986)
- 정시화(1984),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연구소
- (1985), 「현대디자인연구」 서울; 미진사
- 최창봉(1978), 「한국의 민속예술」 문예진흥원
- 이은영(1986),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Marian L. Davis (1980),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Abstract

A Study on dress and its Ornaments for farm-music

Ok-Kyu Suh

This study is on the costumes for Korean traditional play, Nong-ak(farm music), and intends to analyze their aesthetic features, laying emphasis on Pilbong Nong-ak, Im sil, Chollanam-do.

About its origin there are many kinds of theories; for example, the theory of hoping stability, the theory of it being related with Buddhism, the theory of martial music, etc. Shamanic, Buddhist, and martial factors that support these theories are expressed through flags, bells, drums, Deograe (half-coats), Cheonrips (sang-mo, felt hats), gokkals(peaked hats), colored lines called 'gasa', which are used in Nong-ak.

The characteristic of the costumes used in Pilbong Nong-ak is that it keeps its conservativeness and the costumes of its members are various and splendid. For example, leader groups' black half coats, Changbu's and Hwa-dong's red and blue over coats are remarkable. Participants wear gok-kal or cheonrip, trousers and half coats which are the basic costumes of Korean Hanbok, and wear black half coats or blue vests and put blue, red, and yellow lines around them. The colors and knotting methods of those lines in this region are the same with those of chollawoo-do and Kyonggi province, but different from those of Kongwon and Kyong-sang province using

green, red, and yellow colors. This comparison of colors shows each region's preference of peculiar colors and those colors coincide with colors used in flags.

The research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ong-ak clothes through each region's clothes tells us that these can be linear clothes which have expressiveness as stage clothes used in Madangori, the play which is performed in the field, and modern spatial formativeness.

Thos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1. The expressions of a rhythmical and daring round line by turning a long line of sang-mo.
2. Various rhythms according to the attaching methods.
3. The expressions of thick, simple, and daring color lines
4. Natural beauty of materials
5. The popular simplicity and non-technicality
6. The beauty of five-direction colors, Oriental ideal colors

Consequently, in this study our national consciousness of beauty are examined through clothes. It is suggested that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ong-ak clothes and ornaments should be effectively expressed, for this purpose interests in participants' clothes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prevent the confusion of each region's features.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lor lines, their length, width, and knotting methods, and beautify instrument. Finally this study intends to bring the reappraisal about the art of Nong-ak clothes and its re-establishment in view of modern aesthetic consciousness.